

비정상적 CA19-9 상승을 동반한 독성 간염 1예

경주동국대병원 내과¹김정용¹, 서정일¹, 박준기¹, 김여운¹, 심의보¹, 김철¹

서론: 암항원 carbohydrate antigen 19-9 (CA19-9)는 여러 위장관의 악성 종양 특히, 췌장암과 담관암에서 주로 증가하는 종양표지자이다. 하지만, 만성 간염, 간경변증, 담관염, 췌장염, 폐결핵, 폐렴, 기관지 확장증, 갑상선 질환 등의 다양한 양성 질환에서도 증가할 수 있고, 심지어 악성 종양이 동반되더라도 정상일 수 있다. 따라서 CA 19-9 검사 결과만으로 선별리 악성 질환 유무를 판단해서는 안되고, 해석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저자 등은 비트줍을 복용한 후 발생한 독성 간염 환자에서 비정상적으로 CA19-9 상승을 보인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43세 남자가 명치 부위 통증을 동반한 황달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생체 징후는 모두 안정적이었고 혈액의 염증 지표(혈중 백혈구 수치와 C-반응단백)는 정상이었으나 AST/ALT 789/1,908 U/L, 총빌리루빈 7.06 mg/dL, CA 19-9 1,532 U/ml (정상 상한치 37 U/ml)로 상승되었다. 복부전산화단층촬영에서 담낭 확장과 담낭벽 비후 소견이 관찰되었다. 입원하여 시행한 추적 복부초음파검사서 담낭벽 비후 소견이 관찰되었고, 악성 종양 감별을 위해 추가로 시행한 자기공명담췌관촬영술서 별다른 종양은 관찰되지 않았고, 확장된 담낭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 급성 간염에 의한 이차성 담낭벽 비후로 판단되었다. 입원 4일째 AST/ALT 304/457 U/L, 총빌리루빈 12.49 mg/dL로 AST, ALT는 감소되었지만 총빌리루빈은 최대로 상승된 소견을 보였다. 입원 9일째 시행한 CA19-9 수치가 370 U/mL로 감소하였다. 입원 11일째 황달과 복통이 호전되고, 간기능 수치가 호전되는 양상을 보여 퇴원하였다. 퇴원 후 4개월째 외래에서 시행한 혈액검사서 AST/ALT 60/35 U/L, 총빌리루빈 0.54 mg/dL, CA19-9 88.5 U/mL로 호전된 소견을 보여 별다른 증상없이 추적관찰 중이다.

CA19-9 수치변화

